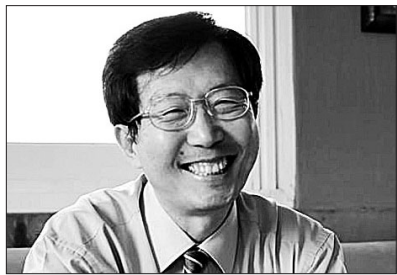


# 'SNS'로 부처님 말씀 실어 나르자!

## SNS서 포교하는 사이버전법단 '주목'

불법 흥포를 위해 재가자들이 현대인들의 소통 공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에 뛰어들다. 부처님 말씀이 '좋아요(Like it)'를 타고 전 세계와 전 세대로 퍼져가는 것이다. '좋아요(Like it)'는 SNS 사용자들이 유익하거나 읽고 싶은 게시물에 클릭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임재삼 대한불교사이버전법단장

'대한불교사이버전법단(단장 임재삼, 이하 사이버전법단)'은 이러한 SNS 상에서 포교와 전법을 이루기 위해 탄생했다. 부처님 가르침 혹은 수행담을 전법단에 나누고, 이를 각각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SNS계정에 부처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를 한 데 아우르는 시도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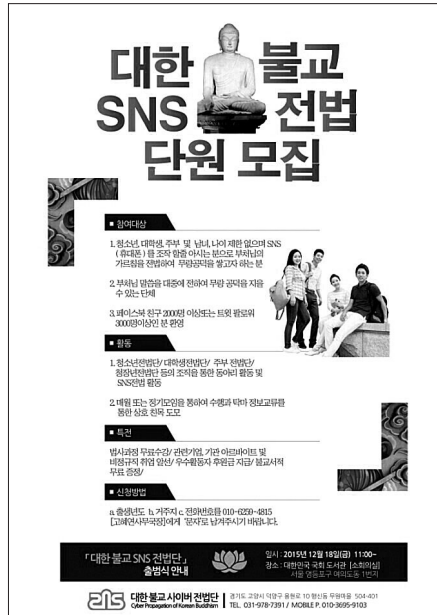
### SNS이용 불자 조직화

불경·수행담 등 계정에 공유

월 2회 정기모임서 콘텐츠 개발

12월 18일 국회서 '공식 출범'

어 자부심과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임 단장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매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수행과 탁마 등 정보교류와 토론 등 실시한다. 토론 주제는 경전, 수행 등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당면과제 등 다양하다.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각자 SNS에 공유하면서 사이버 전법 콘텐츠



'SNS'에 불교 가르침과 수행담 등 공유하며 전법·포교하는 '대한불교사이버전법단'이 출범한다. 이에 사이버전법단은 단원을 모집 중이다.

츠를 양성한다. 특히 한국 불교에 대한 비판 및 견제 기능도 포함 계획이다. '초(超)종교·초종파'를 추구하며 순수 재가자들만 구성된 것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임 단장은 "비판·견제하며 한국 불교

발전이 이끌어야할 재가단체들의 활동이 예전만큼 활발치 않고, 간혹 비리 등으로 얼룩지는 등 병폐가 있다"면서 "전 세대 불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에선 다각적이며 현실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원칙은 삼보외호지만 불교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비판하며 신(新) 포교 유형을 생산할 것"이라 설명했다.

참여는 청소년,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들은 출생년도와 거주지,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고해연 사무국장 010-6259-4815)를 보내면 사이버전법단의 일원이 된다.

현재는 150여 명 회원이 △청소년 전법단 △대학생 전법단 △주부 전법단 △청장년전법단 등으로 조직돼 SNS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단장은 "현재 대학생 전법단은 약 30명 정도 있는데 더 많은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재가자들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포교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전법단은 1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사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신행·포교 소식

### 영어로 배우는 <대승기신론> 강좌

금강정진회, 12월 16일 승우당서 개강

지난 5개월 간 영어로 <능엄경>을 공부해 온 금강정진회가 이번엔 <대승기신론> 강좌에 나선다.

금강정진회(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는 12월 16일부터 서울 종로구 두산위브파빌리온에 위치한 승우당에서 '영어로 읽는 대승기신론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하께다(Hakeda, 1967)와 리처드(Richard, 1907)의 영역본 각 2종 등을 교재로,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진행된다.

강사로는 배광식(사)참수레 이사장과 한창호 금강정진회장이 나선다. 배광식 이사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이며, 선학원 중앙선원 선전회장, 도봉산 광륜사 신도회장, 서울대 교수불자회 회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

문위원 및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창호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 과를 졸업,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 재학 중이다. 저서로는 <꽃과 쓰레기> <셀프 컴패션> <미국과 불교와 만남> 등 있다.

금강정진회는 "대승기신론은 대승의 골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서 대승의 대승 불교관에서 중시하는 논서 중 하나"라면서 "대승의 중요한 경전과 논서들을 깊이있게 공부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실천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정진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어로 읽는 능엄경 강좌'를 실시할 바 있다.

박아름 기자

### "예비 초등생에게 책가방 선물" 캠페인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 캠페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저소득가정 예비초등생 지원 캠페인 '선재의 선물'이 올해 겨울에도 이어진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내년 1월까지 '선재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선재의 선물은 후원자 기부금 10만원이 모이면 1명의 아동에게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도서 등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조순·한부모·저소득가정 등 총 1천명의 아동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우리 아이들의 책가방 무게가 누구는 무겁고, 다른 누구는 가벼워서 안 된다"며 "자신의 첫 책가방을 기다리는 아이들 모두 힘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후원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2009~2011년 4천500명의 예비초등생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했으며, 2012년부터 책가방 지원 캠페인을 실시해 2천700명에게 책가방을 지원했다. 후원참여는 아름다운동행홈페이지(<http://dreaminus.org>) 또는 농협 301-0077-7946-11(예금주:아름다운동행)으로 가능하다.

윤호섭 기자

### 대방사, 천일기도 및 산사음악회

11월 28일 사천 용각산 경내서... 5백여 명 참석

경남 사천시 용각산 대방사(주지 도안)는 11월 28일 미륵부처님 천일기도 및 찬불 산사음악회를 '바람과의 동행'이란 주제로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지 도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륵부처님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나 한사람이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세계가 병들 수 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쯤 돌아보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이웃들의 자비로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타행을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미륵세계가 도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운 경남 남부지사장

## "군불교 미래 위해 헌신할 터"

군종교구, 제47주년 군승의날 행사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27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47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종회의원 혜자 스님,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 예비역 군승 권기중 법사,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조한규 육군 30사단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각원 허현구 공군 선임승승 법사는 발원문 봉독을 통해 "부르나니 후예로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서원과 정신을 다짐한다. 장병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군승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함께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윤희왕가 되고 비타인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포교의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27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47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다짐했다. 법회에서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통해 군포교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도안사 주지 혜자 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올해의 군승상' 시상식이 열려 총무원장상 육군종합행정학교 재가 김재욱 법사, 포교원장상 육군 8군단 병망 정운성 법사, 포교교육사 진홍 정연호 법사, 군종교구장상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진오 손기준 법사, 해군2함대 범종 성준모 법사, 육

군 1기갑여단 지일 스님 등이 상을 받았다. 한편, 군종교구는 지난해부터 '군승의날' 행사를 외부 연회장을 빌리지 않고, 교구장 정우 스님이 장전한 일산 여래사에서 봉행하고 있다. 대관료 등 절약된 경비는 전방부대 군법당 불사에 지원된다.

한편, 이날 행사 직전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제사로 '단소'와 함께 '순직 군승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중신회, 청도 임원 연수

11월 27~29일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 논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27~29일 중국 청도에서 2015년 신도회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중앙신도회와 전국 17개 교구신도회, 16개 신도단체 등에서 72명이 참가했다.

임원연수 일행은 첫날 소정도와 1897년 독일 점령 당시 지어진 독일총독 관저 등 역사탐방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청도도량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중대 신도조직 비전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전국적으로 교구신도회가 결성된 만큼, 2016년부터는 신도회간 연계사업을 본격 실시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현안에 맞도록 실천하고 구현하는 불자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노덕현 기자



### 선무도 화랑학교

##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마지막 훈이 깃든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8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 연 제 : 2015년 12월 27일 ~ 2016년 1월 23일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 준 비 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방한모,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고, 토요일 12시 퇴교, 방한장갑, 목도리 등(현금, 휴대용, MP3 휴대 금지)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수련회비 : 1주 35만원 / 2주 70만원 / 3주 90만원 / 4주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 : 선명상,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승마, 국궁, 호신술
- ※ 심성정화 및 전통문화체험 : 불교강의, 108배, 운력, 다도, 민요
-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깎지길 걷기 / 경주남산담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 겨울철 놀이 :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등

1500년 전통사찰·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선무도 화랑학교

### 포교 31주년 기념

## 선무도 지도자 속성과정 입학안내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나파나사티 명상(안반수의·지관)수행과 불교금강영관 선무도 대금강문 지도자 속성과정을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 35세 이하 고졸이상 건강한 남·여 (10명)
- 교육기간 : 1년(초급), 3년(중급), 5년(고급, 법사)
- 교육과목 : 불교학, 선무도, 승마, 영어, 전통문화
- 입학신청 : 방문상담, 전화(054-744-1689), 인터넷(www.golgulsa.com), 이메일(d-kumkang@hanmail.net) 접수

※ 본 교육과정은 등록금 및 숙식비가 전액 무료이나 엄격한 겨울과 사찰청규를 지켜야하며 각자의 소임으로 사중 일을 도와야합니다.

2015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골굴사  
(재)선무도대금강문·선무도대학